

大學專攻선택의有感

얼마전 어느동료가 자기아들의 大學진학에 있어서 專攻선택에 조언을 구해온 일이 있었다. 요즘 한창 마스크에 오르내리는 尖端분야 중에서 전공을 선택해야겠는데 생명공학과 전산학 또는 전자공학 중에서 어느쪽이 더 전망이 좋고 취업도 용이하겠느냐는 것이었다. 「컴퓨터장이」를 20년이나 했으니 賢答이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었다. 한 청년의 일생에서 어떤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 생각하니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.

그러나 이렇게 愚答이라도 하지않을 수 없었다. 「앞으로 前者쪽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 그분야 인력의 회소가치도 예상된다. 그러나 적어도 그가 졸업할 때 취업의 문은 後者쪽이 더 넓은것 같다」고.

남의 집안 일이긴 하지만 과연 그 두가지 전공분야 중에서 擇一하는것만이 문제였을까? 이렇게 父母가 정해주는 전공분야에 당사자는 어느정도 적응할 수 있을것인지? 어쨌든 전자공학을 선택해서 합격했다는 소식이어서 좋은 선택이 있길 바랄뿐이다.

大學 입학원서 접수 마감하루전의 일이다. 컴퓨터를 처음 이용하는 어느회사에 들렀다가 앞서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. 이번에는 전산학과와 전자공학과 중에서 선택해야겠는데 어느쪽이 더 유망하겠느냐는 것이었다. 이때 나



김증모

(주)한국데이터뱅크 해외사업본부장

는 이렇게 대답하였다. 「앞으로 컴퓨터 관련 교육은 국민 학교에서부터 더 깊이 전개될 것이고 상급학교에서도 거의 필수과목이 될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희소가치는 점차 사라질 것이다. 한편 컴퓨터의 기능은 그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거의 모든 산업기기에도 무궁무진하게 응용되어 확산될 것이 예상되어 그 문호는 더 광범위하게 열려질 것으로 보여진다.

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쪽은 副傳攻 정도로 권하고 싶다」고.

그는 이 말을 듣자마자 집으로 전화를 걸더니 전산학과 보다는 전자공학과로 굳히라고 전하는 것이었다. 나의 의견이 바로 받아들여지자 내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. 그러나 거리낄 것은 없었다.

며칠전 우리집 中3짜리 막내의 앞으로의 전공에 대하여 母子간의 의견일치로 전산학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였기 때문이다.

그러나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이 있었다. 中3짜리 막내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찰에서 전산학이나 전자공학에 적성이 맞게 보이는 점이 별로 기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.